IB 2020-03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3월 12일 (목)

CONTENTS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여의도연구원
THE YEOUIDO INSTITUTE

이슈브리프

(IB 2020-03)

CONTENTS

Ⅰ.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1

Ⅱ.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9

Ⅲ.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 18

발 행 인: 성동규
편 집 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창배, 나경태, 김태원(외부)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3월 12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3월 2째주)에는 '신종코로나' 국면 하 경제 전망,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포털 댓글/실검 정책 개선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쇼크'에도 표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文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그려낸 북한과 실제 북한사회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봤으며, 제3편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포털의 댓글/실시간검색어 폐지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1편: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문 정권 정책실패에 신종코로나 쇼크가 겹치면서 올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 그런데도 정부는 마구잡이 피해구제, 선심성 현금살포 등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을 남발하며 미덥지 못하게 대응. '비상상황'을 핑계로 벌어지는 재정건전성의 무분별 훼손을 적극 제어하고 과감한 규제혁파, 노동개혁, 효율적 세제시스템 구축 등 신종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강하게 요구해야 함

제2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한승호 숭실대 교수, 이윤식 안보통일센터장)

남북한 청춘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판타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폭발적 인기(21.7%)를 누리며 종영.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 및 이질성 극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반면 북한을 과도하게 미화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북한'보다는 '보고 싶은 북한'만 보여주는데 주력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 이에 북한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현실 속 북한'과 '드라마 속 북한'은 어떻게 다른지,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드라마 속에 묘사된 "7가지 포인트"(장마당, 달러, 차량번호, 숙박검열, 화장품, 스마트폰, 한류 등)에 집중해 점검 및 설명해 보고자 함

제3편: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김진욱 변호사)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댓글 서비스 등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양방향 소통'이라는 가치를 추구. 그러나 동시에 포털은 인격권 침해, 인위적 조작 관련 댓글들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도 있음. 특히, 포털에서의 여론 조작 및 범죄 발생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댓글 노출 등 인공지능(AI)의 설계값에 대한 검증·필터링이 필요하고, 또한 어뷰징 모니터링 조치 및 보완 등도 긴요

Ⅰ.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작성: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kim.chang.bae@ydi.or.kr)

문 정권 정책실패에 신종코로나 쇼크가 겹치면서 올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 그런데도 정부는 마구잡이 피해구제, 선심성 현금살포 등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을 남발하며 미덥지 못하게 대응. '비상상황'을 핑계로 벌어지는 재정건전성의 무분별 훼손을 적극 제어하고 과감한 규제혁파, 노동개혁, 효율적 세제시스템 구축 등 신종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강하게 요구해야 함

1. 신종코로나로 2020년 세계경제 비관론 확산

□ 인적교류 제한과 공급망 혼란 등으로 세계경제 급락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종코로나로 올 세계경제성장률이 최대 1.4%p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가정 1) 중국 감염 1분기 말 진정, 다른 나라 상황 제한적
  - 세계경제 성장률은 2.4%로 기존 전망치(2.9%) 대비 0.5%p 하락
  - 이는 2009년 이후 최저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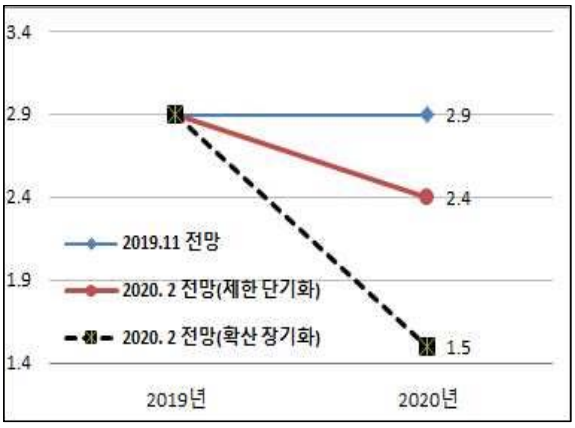
- (가정 2) 아·태 지역, 유럽 및 북미 등으로 확산되고 장기화
  - 성장률은 1.5%로 추락. 기존 전망치(2.9%)대비 1.4%p 하락
  - 이는 바이러스 발생 전에 전망된 성장 속도의 절반에 불과

[그림 Ⅰ-1] 中과 세계의 경제결합도

단위: 세계대비 중국비중 %

[그림 Ⅰ-2] OECD의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자료: OECD,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2 March.2020

○ 블룸버그는 최악의 경우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1%에서 0.1%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

- 신종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세계 GDP가 4분기에 가서 회복될 경우를 최악의 경우로 가정

- 블룸버그는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선 우리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낙관적”이라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시사

○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 세계경제성장률이 0.1~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림 Ⅰ-3] 갈수록 낮아지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전년비 %

	기존	수정	최종 전망시점
세계은행	2.7	2.5	2020.1.9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2.3	1.1	2020.2.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	1.5~2.4	2020.3.2
국제통화기금(IMF)	3.3	2.9 미만	2020.3.4
아시아개발은행	2.1	1.7~2.0	2020.3.6
블룸버그	3.1	0.1~2.8	2020.3.8

2.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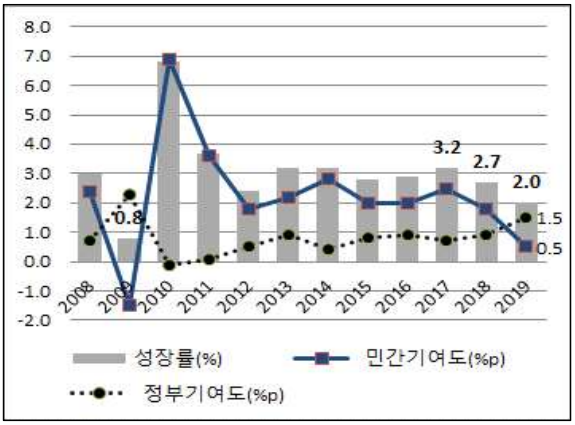
□ 신종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정책실패의 영향으로 기진맥진

○ 2019년 성장률은 2.0%로 2008년(0.8%) 이후 최저치 기록

-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가(GDP디플레이터)마저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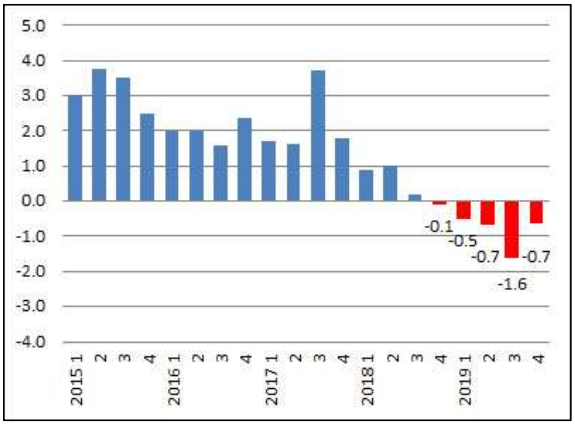
[그림 Ⅰ-4]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그림 Ⅰ-5] GDP디플레이터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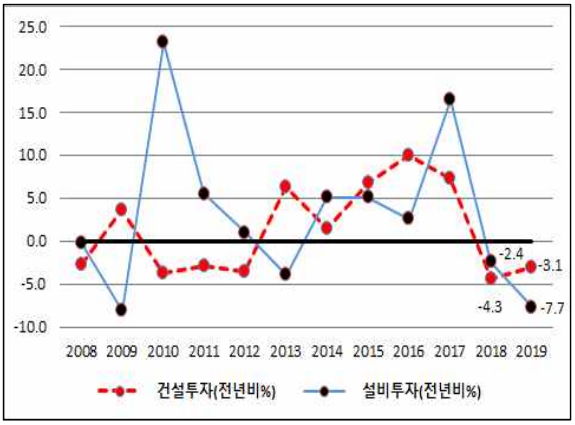
○ 현재 성장동력(수출)은 물론 미래 성장능력(투자)마저 부진

- 2019년 설비투자(-7.7%)는 금융위기(2009년, -8.1%)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건설투자도 2018년(-4.3%)에 이어 2019년(-3.1%)에도 연속 감소

- 수출은 2018.12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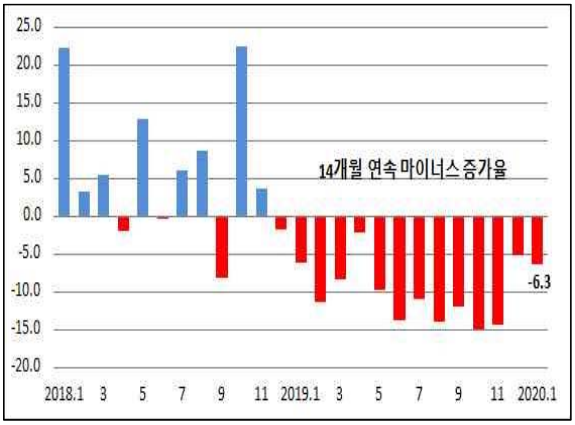
[그림 Ⅰ-6] 건설·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그림 Ⅰ-7] 수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여기에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

○ 2월 들어 국내 체감경기 급락이 가시화

- CSI(소비심리지수): 104.2(2020년 1월) → 96.9(2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같은 낙폭

- BSI(제조업업황): 76(2020년 1월) → 65(2월), 역대 최대 낙폭

○ 2월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도 본격화되기 시작

- 2월 일평균 수출은 큰 폭(-11.7%) 감소했으며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신종코로나가 시작된 1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1월 -10.7%, 2월 -6.6%)

- 2월 셋째 주 기준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0.6%, 숙박업, 음식점 매출도 각각 24.5%, 14.2% 감소하는 등 소비도 급격 위축

- 환율급등, 외국인 주식 순매도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

□ 국내외 전망기관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예상

○ 대외 및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속성상 세계경제의 비관적 흐름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

- 노무라와 모건스탠리는 0%대 성장률의 가능성을 예상

[그림 Ⅰ-8] 급격히 하향 조정되는 한국경제 성장률

	기존	수정
JP모건	2.3	2.2
한국은행	2.3	2.1
OECD	2.3	2.0
무디스	2.1	1.9
피치솔루션스	2.2	1.7
S&P	2.1	1.6
노무라	2.1	0.5~1.8
모건스탠리	2.1	0.4~1.3

○ 위 전망의 하향위험(downside risk)을 감안할 때 2020년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 못하는 상황

- 이전에는 과감한 경기부양적 재정· 통화 정책이 신뢰 및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사태 이후 성장률이 강한 반등

- 하지만 이번 사태는 공급차질 등 부작용 상쇄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세계적인 입국제한 및 여행 금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인(GVC)의 차질이 가시화되면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

  •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감염확산이 중국에 국한되거나 1분기 중 조기 종료되는 것을 기본전망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상황은 이 단계를 넘어선 상태

3. 엄중한 경제 상황과 괴리된 정부대응

□ 피해 지원에 치중하면서 한시적·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 효과 검증이 생략된 졸속, 부실 대책들로는 경제회복은 커녕 제대로 된 코로나 피해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저소득층 137.7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20% 상당의 인센티브 등 현금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방안이 대표적인 '효과 묻지마' 지원책

□ 총선용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무차별 지원책도 '끼워넣기'

○ 연소득이 수억 원이 넘는 가구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

-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 씩 4개월간 총 1조 539억 원을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이 여기에 해당

□ 더구나 '비상상황'을 핑계로 슈퍼급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

○ 추경 11.7조원 중 10.3조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데 이는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을 내는 행위와 다름없음

- 이로 인해 올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2%에서 2020년 41.2%로 1년만에 4%포인트 급등

○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도 종전 3.5%에서 4.1%로 확대, 이는 외환위기 중인 1998년(4.7%) 이후 최악

4. 코로나 극복을 넘어 '경제회복' 위한 정책 대전환 시급

□ 훼손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 지출구조조정과 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을 병행

-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에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0.4배로 OECD 회원국 평균의 0.6배에 비해 낮은 편으로 비효율적으로 조세가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 Ⅰ-9]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단위: GDP대비 %, 배

	한국	OECD 평균
GDP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A)	11.8	20.0
GDP대비 국민부담률(B)	28.4	34.3
A/B*100	0.4	0.6

○ 무조건부 복지에 최소한의 반대급부를 부가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추구

- 예를 들어 고교 무상급식, 아동수당 지급 시, 해당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 등 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설문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코로나 교훈을 수용하여 반(反)시장 정책들과 과감히 결별

○ 신산업의 발전을 막는 기득권 규제 개혁

- 특히 이번 코로나 경험은 원격의료, 원격수업의 확대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집단감염확산 방지, 수업일수 확보 등 향후 반복될 감염병 위기 대응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개혁

- 한시적 허용한 특별근로 연장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용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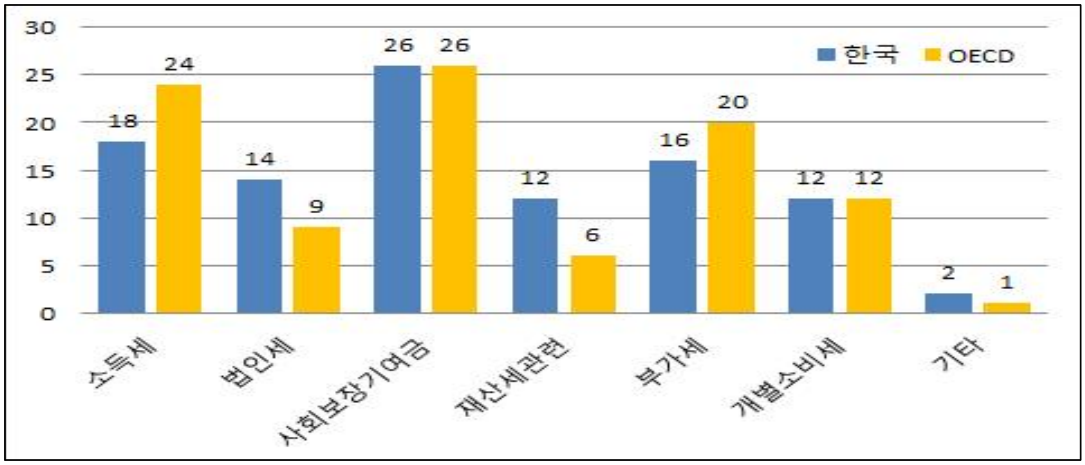
○ 징벌적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효율적인 세제시스템 구축

- 위기극복 재원을 빚으로 조달하는 작금의 사태는 문 정부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과 무관치 않음
  -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기업, 가진 자에 대한 징벌적 '편가르기'와 다름없음
  - 예상과 달리 세수가 감소하면서 정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올 본예산과 추경안에서 7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 경제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둔 조세체계 구축
  - 세수 항목별 비중을 고려해 개인소득세와 부가세는 늘리고 법인세와 재산 관련 취·등록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 검토

[그림 Ⅰ-10] 한국과 OECD의 세수구조 비교(2017년)

단위: 전체 세수대비 비중 %



Ⅱ.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작성: 한승호 숭실대 초빙교수, 이윤식 안보통일센터장

남북한 청춘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판타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폭발적 인기(21.7%)를 누리며 종영.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 및 이질성 극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반면 북한을 과도하게 미화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북한'보다는 '보고 싶은 북한'만 보여주는데 주력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 이에 북한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현실 속 북한'과 '드라마 속 북한'은 어떻게 다른지,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드라마 속에 묘사된 "7가지 포인트"(장마당, 달러, 차량번호, 숙박검열, 화장품, 스마트폰, 한류 등)에 집중해 점검 및 설명해 보고자 함

1. <사랑의 불시착>의 매력 포인트

○ 북한 소재 드라마의 성공 사례

- 2010년대에 북한 및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스파이 명월〉(2011), 〈더킹 투하츠〉(2012), 〈아이리스 2〉(2013), 〈불어라 미풍아〉(2016) 등 여러 편이 제작, 방영

- 매 작품마다 많은 인기를 끌며 종영됐는데, 그 요인은 남북한 청춘 남녀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극적으로 녹여냈기 때문

  • 특히, △적은 예산, △짧은 촬영기간, △폭넓은 시청층 등 여러 한계 상황 하에서도 '청춘남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란 클리셰는 전통적 인기 장르

○ 〈사랑의 불시착〉의 성공 요인

- '선과 악'의 평면적 대결구도, '남-북'이란 식상한 구성에서 탈피해 '캐릭터 중심'으로의 몰입도 높은 변화를 시도

• 드라마의 성공 요소인 클리셰(청춘남녀의 러브스토리)를 바탕에 깔고, '캐릭터(윤세리 vs. 리정혁) 중심'으로 버무려 몰입도를 높인 게 주효

- 다음, 톱스타 현빈과 손예진, 주조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북한 미화 및 소재 표절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시청률 폭증을 견인

- 마지막, 기존 작품들의 전통적 북한 묘사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의 상상력과 변화된 북한의 모습간 절묘한 조화가 신선했다는 평가

※ 일각에선 드라마 요소요소에서 북한을 과도하게 미화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북한'보다 '보고 싶은 북한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는 논란도 제기

○ 〈사랑의 불시착〉의 신드롬

- 시청률 21.7%를 기록하며, 〈tvN〉 드라마 중 역대 최고를 기록

※ 당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도깨비〉(2016)의 20.5%의 위상을 초월

- 드라마 종영 후 젊은층들 사이에서 북한 언어(살까기 등) 따라 하기, 북한 문화(대동강 맥주, 김장전투 등)에 대한 관심 표명 등의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의 계기를 마련

- 반면, '드라마 속 北'과 '현실 속 北'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북뽕 판타지'에 국한된 북한 모습의 한계를 점검할 기회도 가짐

2. 드라마 속 '7대 포인트'와 설명 덧붙이기

1 북한의 대표적인 마트, "장마당"

○ 드라마에서 장마당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등장

- #2회: 리정혁이 윤세리를 위해 장마당에서 한국산('아랫동네') 목욕용품과 샴푸 등을 구입하는 장면
- #4회: 장마당에서 길을 잃은 윤세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향초를 들고 서 있는 리정혁 모습
- #5회: 윤세리가 사택 마을 부녀자들과 장마당의 전당포에 반지를 맡기고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장면

○ 실제 장마당은 북한 경제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 농민시장과 암거래 시장이 결합되어 생긴 대규모 시장을 통칭해 "장마당"이라 지칭
- 북한엔 비공식 시장을 포함 전국에 약 800여개의 장마당이 있으며, 북한 주민의 2/3 이상이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 드라마에선 매대 상인만 등장하지만 실제론 다양한 상인들이 있고, '매대상인'은 화장품 등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노상상인'(메뚜기 장사꾼)은 채소 등 농산물을 주로 판매

2 달러의 중요성, 북한서 1달러의 가치

○ 드라마에서 조철강이 정만복에게 4달러(USD)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북한엔 달러화 현상이 심각해 북한 돈처럼 통용

- 1달러(USD)당 약 8,000~9,000원(KPW)으로 교환 가능하며, 이는 장마당에서 쌀 2kg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

※ 코로나로 장마당 쌀값(2.11) 폭증: △혜산: 4,550→6,550, △신의주: 4,300→5,650, △평양: 4,470→5,480 등 '심리적 저지선' 5,000원 붕괴

○ 실제 북한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환율을 달리 적용하는 '이중 환율 체계'(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를 유지

- '공정 환율' 적용시 외국인은 1달러(USD)당 1,000원으로 교환하고, 내국인에겐 시장 환율을 적용해 1달러당 약 9,000원을 적용

- 특히, 외국인이 호텔이나 상점에서 달러(USD)로 값을 지불할 경우, 차액은 북한의 원화 내지는 위안화 및 유로화로만 지불받음

※ 외국인이 사용한 달러(USD)는 한 번 지불하고 나면, 절대로 되돌려 받지 못함

3 차량번호는 곧 "권력 서열"

○ 드라마 속에 랜드로버나 재규어 등 다양한 외제차가 등장하지만, 실제 북한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 드라마에서 총정치국장의 차량번호가 '평양 20-1853'로 나오지만, 실제 핵심간부의 차량은 2·16(김정일 생일) or 7·27(전승절)로 시작

- 북한에서 위 번호판을 단 차량은 검열이나 검문 등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운행 가능

※ 평양 01~09 번호판은 중앙당, 11~12 당 기관, 12~14 내각 및 행정단위, 15-17 인민보안성, 18~20 국가보위부, 21 사법부, 22 당 39호실 소속 차량

○ 한편, 북한의 고속버스는 "써비차(service-car)"로 통칭

- 북한은 고속버스가 거의 없고, 도로 사정이 원만치 못해 주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

- 이에 트럭을 개조한 차량(써비차)을 고속버스 대신 운행. 즉, '써비차' 영업은 불법이지만, 주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 또한, 북한의 택시는 "발바리 차"로 명명

- 평양에는 5개 택시회사가 있고, 약 6,0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택시 기본요금은 2달러, 1㎞당 0.5달러씩 추가

- 현재 북한에는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택시가 부족해 합승과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공공연하게 성행

4 검열 국가 북한의 '숙박검열'

○ 드라마에서 '숙박 검열'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일로 보안원(경찰)이 검열을 실시

- 시간대는 심야나 새벽 등 가리지 않고 들이닥치며, 단속반은 구둣발로 집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 보안원과 인민반장이 한 組가 되어 가족의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며, 북한은 신분증을 보면 혼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 이성과 단둘이 있는 건 검열 대상

○ 드라마에서 묘사된 불륜녀가 장롱에 숨어있는 장면은 북한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농담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

- 특히, 북한에서의 불륜은 숙박업소가 아닌 집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호텔 및 여관은 외국인과 간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

○ 한편, 숙박 외 전기·녹음기·도서·초상화 등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

- 드라마에서 사택마을 정전 시, 인민반장은 불빛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커튼을 꼼꼼하게 치는 장면이 나옴

- 이는 5대 검열 중 '전기 검열'이 가장 엄해서 처벌 수위도 높으며, 최대 "반역죄"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

5 북한 여성의 패션과 화장품

○ 드라마에서 고명은이 하고 나온 '스모키 화장'이나 '사자머리' 등은 실제 북한에서는 금지되어 있음

- 북한에서 스모키 화장(변태화장)은 처벌 대상이며, 여성이 긴머리를 풀거나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도 단속 대상(단, 눈썹 염색은 가능)

○ 드라마 속 북한의 인기 화장품 〈너와나〉는 실제 북한에서도 유행

- 1994.3月, 너와나 화장품 합작회사는 〈너와나〉를 출시해 1990년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화장품으로 등극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여성들이 선호하는 화장품은 〈봄향기〉와 〈금강산〉이며, 수출용으로 인기 있는 화장품은 〈은하수〉

○ 한편, 드라마 속 신흥 돈주인 고명은은 백화점 사장으로 나오지만, 이는 작가의 상상력이 포함

- 실제 '평양 제1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백화점)', '대성백화점' 등은 국영상점으로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운영 중

-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조명이 밝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생필품을 비롯해 샤넬 등 해외 명품까지도 판매

※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북 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도 북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사치품들은 계속 유통되고 있음

6 북한의 스마트폰: "지능형손전화"

○ 드라마에서 리정혁이 핸드폰을 사용하며, 번호는 '191-2'로 시작

- 북한은 통신사에 따라 시작번호가 '191', '192', '193' 등 다양하며, 2020년에는 고려링크 번호인 191+2 번호를 주로 사용

• 북한이 스마트폰 번호를 '191'에서 '1912'로 변경한 것은 김일성 생일(1912.4.15)과 관련이 있음

- 한편, 실제 북한 간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등이며, 개인 취향에 따라 상이

○ 현재 북한에선 약 700만명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 500만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

- 2018년 CIA보고서 「북한 현황자료(Fact book)」에 따르면, 휴대폰 보유 수를 약 480만대로 추정(100명 중 19명 사용 중)

- 일각에선 북한 휴대폰 사용자가 30%에 육박할 경우, 북한 사회의 변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

7 외부정보 유입(한류 등) 정도

○ 첫 회부터 중급병사 김주먹이 한류에 정신이 팔려, 초소에서 무전을 받지 못하는 등 드라마 전체에서 한류가 일반화된 모습이 연출

- #1회: DMZ 내 소초에서 경계병이 근무 중 드라마(“천국의 계단”)를 보느라, 윤세리가 지나가는 걸 놓치는 장면이 나옴

• 김주먹은 최지우(지우히메)의 팬이자, 한류 드라마의 마니아로 웬만한 한국의 상황이나 유행어 등도 완벽히 파악하고 있음

- 실제 북한에선 한류 드라마나 한국풍이 유행하고 있으며,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류 드라마를 보고 남한을 동경해 탈출을 결심

○ 한류 드라마와 예능 및 K-pop은 중국을 통해 북한 장마당으로 유입

-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한류 드라마가 접경지역을 통해 北으로 유입되며, 거래 방식은 CD·DVD에서 USB(10~20달러)로 다변화

- 한편, USB를 통한 한류 외에도 KBS나 VOA 등 라디오 등을 통해 외부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3. <사랑의 불시착>의 시사점과 과제

□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하지 말자(?)”

- 일각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과도하게 미화했다” 내지는 “특권층의 삶을 일반화시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있는 그대로의 북한’보다는 ‘보고 싶은 북한’만 묘사함으로써, 과도한 ‘북뽕 판타지’를 대중에게 퍼트렸다 란 주장

- 그러나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즐겨야지, 이를 다큐로 받아들여 팩트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건 다소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즉, 한국 드라마에도 판타지적 요소와 작가적 상상력이 있는데, 그에 대해 ‘사실 확인’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

□ **'북한 관련 문화예술적 상상'은 언제나 흥미로운 소재**

- 북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계속 제작되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건 한반도의 특수성에 극적 요소가 가미되면,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

- 특히, 영화에서 〈쉬리〉(1999)를 시작으로 〈실미도〉(2003)와 〈태극기 휘날리며〉(2004), 그리고 최근엔 〈강철비〉(2017)와 〈백두산〉(2019) 등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가 끊임없이 제작되고 흥행을 기록

※ 2010년대 이후 〈스파이 명월〉 (2011), 〈더킹 투하츠〉(2012), 〈아이리스 2〉 (2013) 등 TV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높은 시청률을 기록

- 이렇게 볼 때, 흥행성과 배우들의 연기력 면에서 큰 호평을 받은 〈사랑의 불시착〉 이후, 한동안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가 더욱 다양하게 제작될 개연성이 큼

□ **드라마의 인기가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게 "함께 노력"**

- 이번 드라마에 가장 크게 열광하고, 또 가장 강력하게 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젊은층이 아닌, 북한이 고향인 둔 탈북민이란 평가가 있음

- 특히, 이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드라마 속 비현실적 북한의 모습도 동시에 지적하는 시청자이자 평론가 역할을 수행

- 이에 탈북민의 바람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선 드라마 영역에서 만이라도 북한에 대한 "과도한 미화 or 지나친 비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다양하게 부각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

• 〈사랑의 불시착〉 성과를 계기로 향후 드라마에서 하나의 시선이 아닌 북한의 어두운 면과 좋은 면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

Ⅲ.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작성: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 (kjuarea@nate.com)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댓글 서비스 등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양방향 소통'이라는 가치를 추구. 그러나 동시에 포털은 인격권 침해, 인위적 조작 관련 댓글들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도 있음. 특히, 포털에서의 여론 조작 및 범죄 발생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댓글 노출 등 인공지능(AI)의 설계값에 대한 검증·필터링이 필요하고, 또한 어뷰징 모니터링 조치 및 보완 등도 긴요

1.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가치와 위기

□ 포털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수익 창출 방식

○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포털사이트들은 다양한 서비스(검색, 이메일 등)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양방향 소통'이란 가치 실현

- 포털은 제휴를 맺은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일부를 포털사이트의 내부 편집기준에 따라 메인화면에 배열, 특정기사를 이용자에 노출

- 각 기사엔 댓글 게시판 등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 이용자들이 개별 기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한편, 댓글 등 이용자들의 반응은 포털사이트 입장에선 트래픽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포털사이트의 광고/마케팅 수입과 직결

- 포털은 이용자 시간대별로 PC/모바일 광고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매월 최소 수백만 원부터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

- 광고 수입을 기반으로 포털은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인격권 침해, 댓글 조작 등 포털이 직면한 위기와 한계

○ 포털에선 소위 '악플'로 인해 유명인을 비롯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유명인에 대한 인신공격, 욕설 등 인격 침해가 명예훼손·자살 등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연예인 자살 사건이 이로 인해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네이버에서는 3.5(목)부터 '인물 연관검색어'와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

-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가짜뉴스 유포, 개인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댓글 등을 완벽하게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포털이 가진 기술적 한계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는 사실상 기술적 및 집단적·조직적·인위적 조작으로 실상 기사 배열 및 댓글 조작이 가능한 취약한 구조

- 19代 대선에서 킹크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 순위,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 '드루킹 사태'가 대표적

-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국면서 '차이나 게이트', 즉 중국 네티즌들의 한국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취약성이 다시금 노출

2. 포털의 댓글 및 실시간검색어 서비스 현황 및 평가

□ 댓글 게시판 및 실시간검색어의 기능과 운영 프로세스

○ 포털사이트들은 언론사가 공급한 기사를 〈뉴스〉 서비스에 게시하며, 각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운영해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들은 포털이 노출한 기사를 열람, 해당 기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온라인 여론으로 형성
  - 의사표현 방식으로는 해당 기사에 △'좋아요' 또는 '싫어요', △직접 댓글 작성, △타인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 등이 있음

- 포털은 기사의 조회 수, 추천 수 등 이용자 반응을 토대로 포털 메인화면에 특정 기사가 배치되는 구조를 택하고 있음

○ 상단에 배열/노출된 댓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주도

- 통상 댓글 배열 순은 '순공감' 수가 많은 순서로 이용자에 노출되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
  - '순공감' 수는 이용자가 댓글에 표시한 '공감(추천)' 수치에서 '비공감(비추천)' 수치를 뺀 것으로, 〈PC 버전〉은 상위 10개, 〈모바일 버전〉은 상위 5개의 댓글이 상단에 배열됨

○ 한편, 실시간검색어는 단위 시간 동안 입력 횟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검색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배열기준은 '검색량'이 아닌 '증가량'

- △특정 시점보다 검색량이 현저히 높거나, △상대적으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된 검색어 등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배열되는 구조

※ 실검에서 제외되는 경우: △성인·음란물, △불법·범죄·유해정보, △개인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 △비속어 사용 등 서비스 품질 저해, △특정 목적을 가진 고의적 검색어 과다 입력 행위 등

○ 특정 검색어가 갑자기 실검에 노출됐을 경우, 현재 포털 운영 방식 및 구조상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충분히 조작 가능한 구조

- 조직적·인위적으로 실검을 조작하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작업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 실검의 조직적 조작 과정: 특정 집단의 검색 독려 → 검색량 급증 → 실검 순위 등재 → 관련 뉴스 노출 → 순위 상승·유지(이슈 확대)

- 매크로를 이용한 검색어 순위 조작은 인터넷 주소(IP)를 바탕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해 필터링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

□ 실검/댓글 조작방지를 위한 '어뷰징(abusing) 정책' 현황과 문제점

○ 포털은 개별 서비스마다 '어뷰징 설계값'을 설정, 부당한 방법으로 실검과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자체 시스템 가동

※ 어뷰징(abusing): 언론사가 클릭 수를 늘릴 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의도적으로 동일한 제목 또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 전송하거나, 특정 세력이 댓글 게시판의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

- 국내 포털은 동일인이 여러 개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어뷰징 정책을 수립·전개

• 네이버, 다음 등 국내포털은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의 닉네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 어뷰징 정책은 △동영상·사진·텍스트 등 게시물 검색, △실시간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댓글 서비스 등에 적용되어 시행

○ 포털의 어뷰징 정책에도 불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표적이 되는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방지할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조작으로 상위에 노출된 댓글은 개인의 생각과 의사결정에 영향, 온라인 여론 왜곡을 주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해악으로 작용

- 따라서 필터링 수준 상향을 비롯하여 포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이 시급

3. 21代 총선 국면에서 포털업계의 조치의 의미와 한계

□ 총선을 앞두고 댓글·실검 일시중단 및 폐지를 결정한 양대 포털

○ 2.19(水), 네이버는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일시중단하고, 댓글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전격 발표

- 해당 조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4.2(木)부터 4.15(水) 18:00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기사는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

- 같은 날 다음도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 종료를 결정, 2.20(木)부터 해당 기능의 영구 폐지를 단행

○ 이러한 양대 포털의 결정은 현행 운영 방식 및 어뷰징 제재 시스템으로는 포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

- 매크로 공격을 비롯하여 가짜정보 유포, 댓글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를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

- 또한, 조작에 취약한 실검, 댓글 등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격권 침해, 자살 등 위험 요소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 구조적 개선 없는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

○ 그동안 포털의 댓글·실검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바, 총선 국면에서의 일시조치만으론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

- 최근 조국 사태, 코로나 국면 등에서도 포털의 실검과 댓글이 여론 호도 및 왜곡에 악용, 향후 건전한 포털 실질적 해법 강구가 필요

  • 조국 前 장관 국면에서 정부·여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조국 힘내세요” 등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검색어가 실검을 장악

  • 특히,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 조작 논란이 확산되며 ‘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한편, 당 차원에서 포털 관련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발목잡기로 관련 법안이 대부분 계류 또는 무산

- 드루킹 사태 이후 적극 추진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이 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사실상 무산 (2019.3.5)

- 한편,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당 미디어특위(위원장 박성중)에서 인터넷 게시물·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한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추진 중

4. 향후 과제 및 대응방향

○ 포털의 인공지능(AI) 설계값 및 책정기준에 대한 확인 및 검증 필요

- 기사 배열, 댓글 및 실시간검색어 노출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절차 공개가 관건

-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으로 기사, 댓글 순위 등이 결정되고 있는 바, 전문가 등 견해를 반영한 편집 기능 강화도 중요

○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어뷰징 대응/정도를 모니터링, 관련 사건 발생 시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댓글, 실검 조작은 여론 선동 및 왜곡을 넘어서 민주주의에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언론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포털의 댓글 및 실검의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닌 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포털 환경 조성 및 개선책 모색

- 구글의 실검 서비스인 '실시간 트렌드' 등 해외사례 검토와 동시에 포털의 역기능·순기능을 고려한 정책적 해법 제시가 주효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8.8.23~現在)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2019 펭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탈북자 강제북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이슈브리프 2018-24 (발간일: 2018.12.20)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시사점 ▶2018 유럽연합(EU) 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현안보고)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이슈브리프 2018-23 (발간일: 2018.12.6)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현안보고) 자유한국 i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22 (발간일: 2018.11.22)

▶미세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성 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현안보고)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 그 시사점 ▶(현안보고)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브리프 2018-21 (발간일: 2018.11.8)

▶경제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문가정당화를 위한 모색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 쟁점 및 평가 ▶(현안보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태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8-20 (발간일: 2018.10.25)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현안보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이슈브리프 2018-19 (발간일: 2018.10.11)

▶충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이슈브리프 2018-18 (발간일: 2018.9.13)

▶포퓰리즘 국가의 결말 ▶ASU 사례로 본 학습혁명의 효과와 시사점 ▶최악의 고용지표가 선순환 체질변화?: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8.26)에 대한 비평 ▶‘편가르기 式 보유세 강화’ 꼼수 논리

이슈브리프 2018-17 (발간일: 2018.8.30)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외국인 근로자 130만 시대, 현황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8-16 (발간일: 2018.8.23)

▶韓電 대규모 적자, 국민혈세 낭비하는 脫원전 ▶녹조 악화시킨 4대강 보 개방의 역설 ▶관세청의 北석탄 국내 밀반입 조사: 평가와 전망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래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THE YEOUIDO INSTITUTE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여의도연구원 (07247)
Tel. 02-6288-0502 Fax. 02-6288-0507 http://www.ydi.or.kr